

	<b>보도자료</b>	2026. 4. 23.(목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		
		<b>농업기술원</b>	과수연구과장	고승찬
		업무담당자	정승용	☎ 760-741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## 제주도 육성 만감류, 가격 우위 바탕 시장 안착 가속

- 평균 출하가격 6,500~1만 원/kg, 기존 만감류 대비 가격 우위 -
- 판로 확대 및 온·오프라인 마케팅 병행으로 출하량 증가에 대응 -

- 제주 농업기술원 육성 만감류 신품종이 2년 연속 기존 품종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.
  -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선도재배 38농가를 통해 가을향·우리향·달코미·설향 4품종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출하했다.
- 총 출하량은 96톤으로 전년(21.4톤·15농가) 대비 약 4.5배 증가했다. 평균 출하가격은 kg당 6,500 ~ 1만 원으로 기존 주력 품종인 황금향(2024년 기준 3,500원/kg)의 1.3~2.6배 높은 수준이다. \* 2024년 출하가격: 황금향(3,500원/kg), 신품종 4종(8,200~12,000원/kg)

<품종별 세부 출하 내역(2025)>

구 분	가을향	우리향	달코미	설향
농가(호)	11	8	11	8
수량(톤)	22	23	37	14
10a당 생산량(kg)	1,830	2,340	1,950	1,530
첫 출하일	'25. 11. 27.	'25. 12. 4.	'25. 12. 17.	'26. 1. 16.
평균 출하가격(원/kg)	8,750	8,900	10,000	6,500
주 출하처	제주감협	제주감협	중앙청과	제주감협

\* 기존 품종 출하가격(원/kg): 황금향('25. 12.) 3,500 / 레드향('26. 1.) 5,600 / 천혜향('26. 3.) 4,800

- 가격 경쟁력의 배경으로는 품질과 유통 전략이 꼽힌다.

- 당도 13° Bx 이상 · 산 함량 1% 미만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, 품종별 출하처를 구분하고 온라인 · 백화점 채널을 적극 활용했다.
- 현재 재배 중인 나무는 6년생(수확 2년차)으로, 10a당 생산량(1,530~2,340kg)은 기존 만감류보다 다소 적지만, 높은 출하가격에 힘입어 10a당 조수입은 오히려 기존 품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.
- 향후 생육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며, 농가 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농업기술원은 출하량 증가에 대응해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과 ‘감꿀데이’ 등 수도권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.
- 정승용 농업연구사는 “제주에서 육성한 만감류는 재배 농가가 확대되면서 시장 공급 기반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” 며 “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
- 한편 제주도에서 육성한 만감류는 총 6개 품종으로, 2025년 기준 385농가 40.3ha에서 재배되고 있다.

\* 연도별 재배면적 변화(ha): '22) 2.6 → '23) 8.2 → '24) 20.1 → '25) 40.3